

구약일반총론

나라와 언약들과 정경

저자: 리차드 프랫 2 세 (Th.D., Harvard)

역자: 이창배 (Ph.D., UCLA)

번역 후원: 김영택 (Friend Pastor)

제 4 강

구약 정경



THIRD MILLENNIUM

MINISTRIES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 2012 by Third Millennium Ministries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for profit, except in brief quotations for the purposes of review, comment, or scholarship,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nc., 316 Live Oaks Blvd., Casselberry, Florida 32707.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l Scripture quotations are from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Copyright © 1973, 1978, 1984, 2011 International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of Zondervan Bible Publishers.

ABOUT THIRD MILLENNIUM MINISTRIES

Founded in 1997,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s a nonprofit Christian organization dedicated to providing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In response to the growing global need for sound, biblically-based Christian leadership training, we are building a user-friendly, donor-supported, multimedia seminary curriculum in five major languages (English, Spanish, Russian, Mandarin Chinese, and Arabic) and distributing it freely to those who need it most, primarily Christian leaders who have no access to, or cannot afford, traditional education. All lessons are written, designed, and produced in-house, and are similar in style and quality to those on the History Channel[®]. This unparalleled, cost-effective method for training Christian leaders has proven to be very effective throughout the world. We have won Telly Awards for outstanding video production in Education and Use of Animation, and our curriculum is currently used in more than 192 countries. Third Millennium materials take the form of DVD, print, Internet streaming, satellite television transmission, and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ministry and to learn how you can get involved, please visit <http://thirdmill.org>.

구약 일반 총론: 나라와 언약들과 정경

목차 (Contents)

제 4 강 구약 정경 (The Old Testament Canon)

I. 서론 (Introduction).....	1
II. 거울로서 정경 (Canon as Mirror).....	2
A. 근거 (Basis).....	2
1. 성경의 성격 (Character of Scripture).....	3
2. 성경의 예들 (Biblical Examples).....	4
B. 초점 (Focus).....	5
1. 교리들 (Doctrines).....	6
2. 모범들 (Examples).....	6
3. 개인적인 필요들 (Personal Needs).....	7
III. 창으로서 정경 (Canon as Window).....	8
A. 근거 (Basis).....	8
1. 성경의 성격 (Character of Scripture).....	9
2. 성경의 예들 (Biblical Examples).....	12
B. 초점 (Focus).....	13
1. 공시적 속사(速寫) (Synchronic Snapshot).....	14
2. 통시적 추적 (Diachronic Trace).....	15
IV. 그림으로서 정경 (Canon as Picture).....	20
A. 근거 (Basis).....	21
1. 성경의 성격 (Character of Scripture).....	21
2. 성경의 예들 (Biblical Examples).....	24
B. 초점 (Focus).....	27
1. 저자 (Writer).....	27
2. 독자 (Audience).....	29
3. 본문 (Document).....	30
V. 결론 (Conclusion).....	33
VI. 연구의 길잡이 (Study Guide).....	34
A. 복습을 위한 질문들 (Review Questions).....	34
B. 적용을 위한 질문들 (Application Questions).....	34

구약 일반 총론: 나라와 언약들과 정경

Kingdom, Covenants & Canon of the Old Testament

제 4 강 구약 정경 (The Old Testament Canon)

I. 서론(INTRODUCTION)

우리가 먼 여행을 하려고 할 때 그 길을 아는 사람으로부터 믿을만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은 자주 도움이 된다. 물론, 가야 할 길의 약도를 아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고, 일반적인 개관을 갖는 것은 항상 좋다. 그러나 길을 가며 우리는 자주 정말 바른 때에 정말 바른 방향 전환을 할 필요가 있는 복잡한 상황들을 만난다. 그래서 자세한 길잡이를 갖는 것 또한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은 상황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한의 가장 위대한 여행을 하고 있다. 이 여행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땅에도 임하는 것으로 끝날 여행이다. 이 궁극적인 운명을 염두에 두는 것은 좋은 일이고, 큰 그림을 아는 것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기독교인으로 걸어가는 이 여행은 때때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넓은 개념들과 일반적인 원리들 뿐만 아니라 권위적이고 상세한 지시들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 정경을 통하여 권위적이고 상세한 지시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강의는 **구약의 나라와 언약들과 정경**이라고 하는 구약 일반 총론 강좌의 네번째 강의이다. 이전 강의를 통하여 우리는 구약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언약들을 통하여 다스리신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 강의의 제목은 "구약 정경"이다. "정경"이란 오래 전에 사용된 용어로 "표준" 혹은 "척도"를 뜻한다. 구약은 우리의 "정경"이다. 이 정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살면서 그분의 나라를 추구할 때 그들에게 권위적이고 상세한 교훈들을 제공한다.

본 강의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약이 보다 구체적인 안내를 제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찾을 수 있는지를 탐구할 것이다. 우리가 알게 될 것이지만, 구약의 교훈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는 주된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이 방식들은 세 가지 메타포(은유)를 통하여 묘사될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구약을 거울로 간주하며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들로부터 주로 일어나는 질문들과 주제들을 권위적으로 반영하는지를 살필 것이다. 둘째, 우리는 구약을 역사의 창으로 간주하며 어떻게 그것이 과거의 중요한 사건에 대한 권위있는 기록을 제공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을 인도하는지를 살필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구약을 그림 곧 일련의 문학적 묘사들로 간주하며 어떻게 인간

저자들이 특별한 방식들을 통해 과거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고 모든 시대에 걸쳐 적용되도록 의도했는지를 살필 것이다.

이러한 접근들이 보이는 차이들은 대체로 강조의 문제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연구를 위해 그것들을 따로 따로 살필 것이다. 그럼 먼저 구약 정경이 우리가 읽으며 제기하는 질문들과 관심사들을 반영하는 거울 같이 보여지는 측면들을 살펴보자.

II. 거울로서 정경 (CANON AS MIRROR)

당신이 친구들과 그룹을 이루어 한 책을 읽을 때 어떤 것들은 당신의 관심을 사로잡고 다른 것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것에 주목해 본 적이 있는가? 당신이 그 그룹에게 “이 장에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당신은 자주 여러 사람으로부터 매우 다른 대답들을 들을 것이다. 많은 경우에 이것은 한 사람이 옳고 다른 사람들이 틀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것에 주목하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보는 관점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우리가 책들을 읽을 때, 그 책들이 우리의 흥미들과 관심사들을 반영하므로, 우리는 자주 그것들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로 간주한다. 남자들은 그들과 관련된 것을 찾고, 여자들은 자주 보다 흥미로운 다른 일들을 찾는다. 늙은 사람과 젊은 사람, 이런 사람과 저런 사람—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며 우리의 읽는 것에 반응한다. 이와 매우 흡사하게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자주 구약이 그들의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접근한다. 우리는 구약이 우리의 관심사와 질문들에 답을 주고 있는 것들을 찾는다. 비록 그 주제들과 논제들이 우리가 읽고 있는 단락의 이차적이거나 덜 중요한 관점일지라도 그렇다. 우리는 구약 정경에 대한 이런 접근 방식을 “주제적 분석”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들 혹은 논제들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구약의 주제적 분석을 탐구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다룰 것이다. 첫째는 주제적 분석의 근거이고, 둘째는 주제적 분석의 초점이다. 먼저 주제적 분석을 통해 구약을 탐구하는 일의 근거를 살펴보자. 이 접근 방법을 정당화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A. 근거 (Basis)

적어도, 주제적 분석이 구약 정경의 권위적인 교훈들을 찾는데 있어서 적절한 도구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로, 성경의 성격 자체가 우리로 성경을

그러한 방식으로 읽도록 격려한다. 둘째로, 우리는 성경의 저자들과 등장 인물들이 주제적 분석을 사용한 예들을 갖고 있다. 먼저 성경의 성격이 어떻게 주제적 분석의 정당성을 입증하는지를 고려해 보자.

1. 성경의 성격 (Character of Scripture)

구약을 읽는데 있어서 주제적 분석이 하나의 적절한 방법이 되는 것은 구약의 단락들이 대부분의 상당히 길게 잘 쓰여진 본문들처럼 여러 가지 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구약의 단락들은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의 문제에 대한 암시들을 갖고 있다. 불행하게도, 좋은 의도를 가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주 구약의 단락들의 의미를 지나치게 단순한 관점에서 생각한다. 그들은 성경의 단락들이 매우 가느다란 광선과 같은 정보를 제시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한 단락은 이것을 의미하고 또 다른 한 단락은 저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자주 한 단락의 주된 혹은 중심적인 주제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단락이 다루고 있는 덜 중요한 주제들을 무시해 버린다.

그러나 면밀한 해석은 우리로 구약의 단락들의 의미가 실제로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보게 한다. 의미는 한 레이저 광선과 같은 것이라기보다는 점점 널리 퍼지는 빛의 광선과 더 밀접하게 비교될 수 있다. 첫째로, 어떤 주제들은 아주 중요하므로 한 단락에서 밝은 조명을 받는다. 이런 주제들은 그 단락의 중심적인(prominent)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다른 논제들은 더 약한 수준의 빛에 의해 조명을 받는 것처럼 보다 지엽적으로 다루어진다. 이런 주제들은 그 단락의 부차적인(minor)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셋째로, 어떤 논제들이나 주제들은 한 단락의 관심사와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혀 조명을 받지 못한다. 이런 주제들은 그 단락과 무관한(extraneous)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주제적 분석은 주제들의 이러한 범위를 인정하고 구약 단락이 말하는 이차적인 혹은 부차적인 논제에도 관심을 쏟는 경우들도 자주 있다. 우리에게 흥미로울 때는, 이 부차적인 논제들이 주제적 분석을 위한 연구의 주된 대상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기 위해 성경의 첫 구절인 창 1:1을 살펴보자. 거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창 1:1)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자신에게 “이 절이 무엇을 가르치는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언뜻 보기에 그 대답이 매우 간단하다고 생각하며 창 1:1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대답할 것이다. 아마도 우리들 대부분은 이것이 이 절의 중심 개념을 요약하는 정당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이 요약이 사실일지라도, 우리가 이 중심 주제로만 우리를 제한해 버리면, 이 절이 다루는 많은 다른 주제들을 무시해 버리는 것이 된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주제들 혹은 모티브들이 창 1:1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가? 실제로 그 목록은 매우 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관한 것 외에도, 이 절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존재하셨다는 것과 같은 신학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 절은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창조주로 인정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창 1:1은 또한 창조에 보다 집중되는 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 절은 창조 사건이 있었다는 것, 창조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하늘이 창조의 한 영역이라는 것, 땅이 창조의 한 영역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말해 준다. 이 한 절이 이 모든 부차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하게 그것들 중 어느 것에도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창세기 1장 1절처럼 단 한 개의 절에 그렇게 많은 주제들이 나온다면, 좀 더 큰 단락에 얼마나 많은 주제들이 나올지를 상상해 보라. 대부분의 구약 단락들은 아주 많은 주제들에 대하여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기하는 관심사와 질문들과 무수한 연관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단락의 중심적인 주제들과 부차적인 주제들을 바로 파악하며 무관한 주제들을 배제할 수 있는 한, 구약의 권위적이고 상세한 교훈들을 파악하기 위해 주제적 분석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

2. 성경의 예들 (Biblical Examples)

주제적 분석의 정당성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영감받은 성경 저자들 자신들이 구약을 그러한 방식으로 접근한 사실에 주목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들의 예들을 보면, 구약 단락들의 비교적 부차적인 관점들이 그들 자신의 관심사와 일치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자주 그것들에게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 금방 드러난다. 히 11:32-34이 보여주는 인상적인 예를 고려해 보라.

(히 11:32-34 개역개정) 32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다 33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34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와 삼손의 이야기를 잘 아는 사람은 누구나 사사기가 이 두 사람을 아주 호의적인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음을 알고 있다. 사사기의 중심적인 주제들은 거의 전적으로 입다와 삼손을 포함한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개인적이고 도덕적인 실패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나중에 있을 강의들에서 볼 것이지만, 실제로 이러한 실패들은 사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강조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부차적인 주제들이지만 사사기는 입다와 삼손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그 자신의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찾으며 입다와 삼손의 긍정적인 업적을 강조할 수 있었다. 그에게 중요한 주제들을 강조하며 사사기에 주제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을지라도, 히브리서 저자는 사사기 본문에 충실하며 그 자신을 구약의 정경에 복종시키고 있었다.

지금까지 구약의 권위적인 메시지에 대한 주제적 접근들이 정당하다는 것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주제적 분석의 주된 관심사들 곧 초점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B. 초점(Focus)

우리의 관심을 끄는 주제들이 사람과 시간과 장소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적 접근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서는 안 된다. 동시에 우리는 그들의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찾으며 기독교인들이 따르는 어떤 경향들을 분간할 수 있다. 첫째로, 우리는 교리에 대한 초점에 대하여 말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모범들에 대한 강조에 대하여 말할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개인적인 필요에 대한 관심에 대하여 말할 것이다.

1. 교리들 (Doctrines)

구약이 주제적 분석을 통하여 접근되어 왔던 가장 영향력있는 방법은 아마도 기독교 교리들에 대한 지지를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몇 천년 동안 구약은 신학자들이 교리들로 정리할 수 있는 신학적 진리들의 원천으로 간주되어 왔다.

주제적 분석의 매우 효과적인 한 방법은 조직 신학의 전통적인 범주들로부터 유래되는 질문들을 던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렇게 물어 볼 수 있다. “이 단락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하여 무엇을 말하는가?” “이 단락은 인간의 상태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는가?” “이 단락은 심판과 구원이란 교리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는가?” 이런 종류의 관심사들은 구약의 거의 모든 단락에 대하여 던질 수 있는 합당한 질문들이다. 이는 그것들이 성경에 널리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이 반드시 우리가 읽는 특정한 단락들의 중심적인 관심사들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의식해야 한다. 그것들은 자주 전통적인 신학적 연구에 의해 유발된 우리 자신의 관심사로부터 일어난 것들이다.

이런 종류의 주제적 초점은 자주 교리적 입장을 정당화할 특정 구약 단락들에 대한 빠른 언급들 즉 증거 본문들의 형식을 취한다. 조직 신학 책이나 신앙 고백이나 공식적인 교리 선언문을 읽을 때, 우리는 거의 매번 교리적 입장들을 지지하기 위해 언급된 수많은 구약의 구절들을 본다. 불행하게도, 증거 본문들이 지지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교리들이 실제로 인용된 구절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떤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된 증거 구절들이 그 교리와 실제로 아무런 관계가 없을 때, 그 교리적 입장은 부주의하거나 심지어 부정직하게 보일 수 있다. 실제로 어떤 신학자들이 구약 본문들을 이런 식으로 매우 조작하게 잘못 다루었기 때문에, 다른 신학자들은 증거 본문을 언급하는 과정을 아예 거부하였다. 그러나 남용으로 인한 잘못 때문에 증거 본문을 언급하는 일을 포기하는 것은 현명한 길이 아니다. 심지어 그 주제들이 그 단락들에 중심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도, 바르게 확립된 증거 본문들은 통상적으로 성경 단락들에 있는 주제들을 가리키는 데 있어서 정당하고 유용한 방법이다.

2. 모범들 (Examples)

주제적 분석의 또 하나의 보편적인 형태는 모범들에 대한 관심이다. 자주 우리는 구약에 의지하여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인물들이나 따라서는 안 될 인물들을 찾는다.

불행하게도, 일부 기독교인들은 성경 인물들의 언행심사들을 잘못 다룸으로써 구약의 이런 접근을 남용해 왔다. 그들은 성경의 보다 폭 넓은 가르침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어떤 구약 인물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모범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인물들을 모범으로서 높이는 경우들이 자주 있다. 이런 종류의 남용은 아주 널리 퍼져 있어서 이런 유형의 주제적

분석을 아예 거부해 버리는 학자들도 많다. 그러나 남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범들을 찾는 주제적 관심은 매우 유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라. 설교자들은 자주 다윗을 모범으로 세우며 청중의 마음에 호소해 왔다. 우리는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거부한 것,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 것, 그리고 골리앗을 이긴 것에 대하여 칭찬받는 것을 자주 듣는다. 그의 태도와 말과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필요로 하고 그분으로부터 승리의 선물을 받는 길들에 대한 모범으로서 다루어진다.

안타깝게도, 최근 몇 십년 동안 많은 해석자들이 이 단락에서 다윗을 믿음의 모범으로 다루는 것이 요점을 완전히 놓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틀림없이 이 이야기의 중심적인 주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을 들어 올리셨다는 것이다. 그렇다 하여 이것이 이 단락의 유일한 주제라고 암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윗의 믿음은 승리로 나아가는 그의 길이였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왕조를 세우셨던 이유들 중의 하나를 설명하기 때문에 이 야기의 결정적인 세부 사항이다. 그러므로 이 단락에서 다윗의 믿음을 부차적인 주제로 언급하는 것도 옳고, 그의 모범을 따르는 것도 옳다.

사실을 말하면, 구약은 본받아야 할 또는 따르기를 거부해야 할 모범들로 가득차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범들을 찾는 것은 구약의 권위적이고 상세한 가르침을 찾는 정당한 방법이다.

3. 개인적인 필요들 (Personal Needs)

셋째로, 기독교인들이 보다 개인적인 여러 관심사들 곧 그들의 개인적인 고투(苦鬪)와 필요에서 나오는 질문들에 대한 답에 대한 안내를 받기 위해 구약의 주제적 분석을 사용하는 것은 아주 정당하다. 우리 모두가 구약으로부터 좋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되는 법, 직장에서 성공하는 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고투를 다루는 법과 같은 주제들에 대한 설교를 들어 왔다. 자주 구약의 단락들은 주제적 분석을 통하여 이런 종류의 실질적인 관심사들을 언급하는 길로 정당하게 간주되었다.

예를 들어, 목회자들은 자주 아버지로서 다윗의 실패를 분석한다. 그들은 야곱이 그의 아내를 얻기 위해 14년의 노동을 한 것으로부터 원리들을 끌어낸다. 목사들은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의지하여 주일 아침 예배의 요소들을 예시한다. 그들은 갈멜산 대결 이후에 있었던 엘리야의 감정적 고뇌를 살피며 영적 침체의 표징들을 제시한다.

거울로서 구약을 다루는 주제적 분석은 매우 유익하므로, 우리는 결코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구약 정경의 권위적인 상세한 가르침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의 관심이 부차적인 주제들을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제시해 놓으신 모든 주제로 향하도록 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지금까지 거울로서 구약 정경을 접근하는 방법인 주제적 분석을 통하여 구약의 권위적이고 상세한 교훈들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역사의 창으로서 구약 정경을 접근하는 방법을 다루는 두번째 주제로 나아갈 수 있다.

III. 창으로서 정경 (CANON AS WINDOW)

우리가 과거의 사건들과 관련이 있는 책을 읽을 때, 우리의 관심이 그 책에 묘사된 역사적인 사건들에 쏠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때때로 우리는 그 역사에 심취하여 우리 자신의 삶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문체나 문예적 표현과 같은 그 책 자체의 많은 측면을 무시해 버리기도 한다. 그 대신, 우리는 그 책이 묘사하는 시대의 상황이 어떠했을까를 상상하며 마치 그것이 과거를 들여다보게 하는 창인 것처럼 그 책을 자세히 살펴본다.

이와 비슷하게, 구약 정경은 오래 전에 존재했던 세계를 묘사한다. 기독교인들이 구약의 권위에 순종하는 방법들 중의 하나는 구약을 과거의 사건들 곧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역사를 찾는 창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구약 정경에 대한 이 접근 방법을 역사적 분석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의 역사에 대한 강조 때문이다. 이 접근 방법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사건들에 대하여 배우고, 그것들의 의미를 숙고하고, 그 역사의 교훈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항상 구약을 역사에 대한 창으로 다루어 왔다. 주제적 분석이 지배적이었던 초대교회 시기에도 구약의 역사적 성격이 무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400년, 특히 지난 100년 사이에, 분명해진 사실은 구약의 가장 중심적인 특징이 바로 구약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루셨던 역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역사적 분석을 통해 구약 정경을 접근하며, 그들의 관심을 구약이 언급하는 역사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된다.

구약 정경의 역사적 분석을 탐구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살필 것이다. 첫번째는 역사적 분석의 근거 혹은 정당화에 관한 문제이고, 두번째는 역사적 분석의 초점에

관한 문제이다. 그럼 먼저, 우리가 구약을 역사의 창으로서 정당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보기로 하자.

A. 근거 (Basis)

구약의 역사적 분석을 정당화할 방법들이 수없이 많지만, 우리의 논의는 두 가지 고려 사항들로 한정할 것이다. 첫째로, 성경의 성격 자체가 우리에게 구약을 역사의 창으로 다루라고 격려하는 것을 볼 것이다. 둘째로, 성경적 예들이 우리에게 역사적 분석을 통해 구약을 정당하게 다룰 수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을 볼 것이다. 먼저 성경의 성격이 역사적 분석에 대한 견고한 근거를 제공하는 측면들에 관하여 고찰해보자.

1. 성경의 성격 (Character of Scripture)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기독교인들은 구약이 하나님에 의해 감동되었다는 것 곧 그것이 "영감"되었다는 것을 시인한다. 이것을 바울은 딤후 3:16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로 표현하였다.

(딤후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영감되어 가르침과 꾸짖음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련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의 신적 기원 곧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 영감되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구약이 무엇이 참되다고 주장하면 그것이 정말 참되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확신 위에 우리의 구약 연구를 세우며 강의들을 진행할 것이다.

이 문제를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구약은 역사상에 일어났던 것에 대한 많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들과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들과의 관계를 고려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우리는 성경이 하는 모든 역사적 주장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과 일치한다는 것을 시인한다. 구약이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가르칠 때,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므로, 우리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확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익숙한 사람은 누구나 구약과 실제 역사 사이의 일치에는 한정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첫째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구약은 전하는 역사에 있어서 매우 선택적이라는 사실이다. 구약은 언급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생략하고 있다. 당신은 사도 요한이 요 21:25에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요 21:25 개역개정)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말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세상이 단 한 사람의 생애에 관한 모든 것을 기록하는데 필요한 책들을 담아 둘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구약이 몇 천년 동안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구약의 역사적 신빙성에 대한 반대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구약의 역사적 주장들과 역사의 사실들 사이의 일치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때때로 성경과 역사의 일치 문제는 단지 불신앙 때문에 의문시된다. 무엇보다도 구약 정경은 세속적인 역사가 아니다. 하나님과 초자연적 능력이 구약의 역사적 관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구약이 실제 역사와 일치한다고 믿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곤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말할 필요도 없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구약이 묘사하는 초자연적 세계를 믿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렇지만 구약의 신빙성에 대한 어떤 반대들은 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증거들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것들이 신자들에게조차도 도전을 준다. 많은 존경받는 고고학자들, 지질학자들, 그리고 다른 과학자들은 구약의 신빙성을 부인하도록 해 준다고 그들이 믿는 자료들을 지적해 왔다. 지질학자들은 창조 이야기와 노아 시대의 세계적인 홍수에 관하여 의구심을 갖는다. 고고학자들은 약속의 땅의 정복의 연대와 성격을 의문시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연대 그리고 전쟁들의 결과 그리고 구약에 묘사된 다른 사건들을 의문시한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과학적 주장들은 때때로 설득력이 있어 보여 기독교인들마저 구약의 역사적 신빙성을 부인하도록 만든다. 실제적으로 오늘날 우리는 좋은 의도를 가진 신학자들이 구약에 들어있는 중대한 사건들 중의 소수만이 기록된 그대로 실제로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것을 자주 듣는다. 때때로 그들은 구약의 역사가 공간과 시간 안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건들이라기 보다는 단지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일어났다고 믿어 온 "구원사" 혹은 "구속사"에 불과하므로 문명화된 현대 사람들이 아는 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신학자들에 의하면 구약은 그것의 신학적이고 도덕적인 원리들에 있어서만 완전히 믿을 수 있다. 그러나 말할 필요도 없이 구약의 신학과 도덕적 교훈들은 그것의 역사적 주장들과 떼 놓을 수 없을 만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구약으로부터 역사적 신빙성을 제거하는 것은 신학적이고 도덕적인 신빙성 또한 말살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 조건들 외에도, 구약과 역사 사이의 일치를 보는 것은 언제나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인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왜 그런가? 어떤 종류의 일들이 구약의 역사적 신빙성을 약화시키는가? 때때로 구약이 다른 자료들의 역사적 정보와 긴장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과학자들이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증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가 고고학과 다른 과학들을 평가하는 것이긴 하지만, 과학자들이 실수를 저지른 것이 분명한 경우들이 있다. 그들의 결론은 항상 더 많은 증거에 의해 교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200년 전에 많은 전문 학자들은 구약이 헛(히타이트) 족속을 말하고 있는 것이 틀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세기에 고고학자들은 히타이트 문명을 발견했다. 실제로 히타이트인들이 남긴 많은 문헌은 구약 연구에 아주 유익한 통찰력을 주었다. 이와 아주 흡사하게, 한 세기 전에는 출애굽과 정복의 연대를 주전 1400년경으로 보는 구약의 연대가 너무 이르게 본 것이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고고학적 자료들이 다시 평가되었고 불신자들에 의해서도 성경의 묘사를 지지하는 강한 주장들이 펼쳐졌다. 이러한 수많은 예들은 구약이 과학적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때 과학자들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로, 성경의 기록과 역사 사이의 명백한 불일치는 우리가 구약을 잘못 이해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종류의 상황에 대한 고전적인 예는 갈릴레오와 17세기 교회 지도자들 사이의 다툼이다. 갈릴레오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주장한 반면, 교회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주장했다. 이 논쟁의 대부분은 수 10:13을 중심으로 일어난 것이었다. 수 10:13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수 10:13)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었다 . . .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수세기 동안 교회는 이 구절이 문자적으로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을 잠시 멈춘 것을 뜻한다고 받아들이고 태양계의 가능성을 배제했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적 조사는 매우 확실하게 낮과 밤이 지구의 공전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을 확립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현대 기독교인들은 수 10:13을 이전의 선배들과 다르게 이해한다. 우리는 일광이 여호수아를 위해 기적으로 연장되었다는 것을 알지만, 태양의 멈춤이 땅에 있는 여호수아의 위치와 관련된 일들의 한 현상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여러 구절들을 일상적인 현상학적 언어로 받아들인다. 이것은 우리가 현 세상에서 지금도 “해돋이, 일출” 혹은 “해넘이, 일몰”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태양계에 대한 과학적 증거의 설득력은

우리로 구약의 역사적 신빙성을 거부하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로 구약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고치도록 도와준다.

셋째로, 과학적 의견과 우리의 구약 해석, 둘 모두가 틀린 경우도 종종 있다. 과학자들과 성경 해석자들 모두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후속 연구가 논쟁의 양편 모두가 잘못되었음을 보여 줄 가능성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 언젠가는 과학과 구약에 대한 세심한 연구를 통해 구약이 실제로 역사적 사실과 참으로 일치한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우리는 실제 역사와 구약 사이의 어떤 명백한 차이들이 결코 해결되지 못할 수도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구약의 역사적 신빙성을 믿는 우리에게 모든 학문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들이 계속 주어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유능한 과학자들 사이에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수많은 의견 차이들이 있는 것처럼 구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한 상황이 벌어진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질 수 있고 심지어 어떤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지만, 모든 문제들이 제거되는 지점에까지는 이르지 못할 것이다.

구약과 과학자들 사이에 어떤 긴장 관계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은 성경의 영감이 구약의 역사적 신빙성을 확립한다고 결론지어야 한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적 신빙성에 대한 이러한 믿음의 결과로 우리는 구약을 역사에 대한 권위있는 창으로서 바르고 사려깊게 접근할 수 있다.

지금까지 어떻게 구약의 역사적 분석이 성경의 성격에 의해 지지를 받는가를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역사적 분석에 대한 두번째 근거인 성경의 예들을 살필 것이다.

2. 성경의 예들 (Biblical Examples)

신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 성경 저자들이 구약의 역사적 정확성을 의문시하는 예는 하나도 없다. 우리는 그 예증으로서 단 두 개의 단락만을 언급할 것이다.

먼저 역대기 저자가 그의 족보들에서 구약의 역사성에 의존하였던 방식을 고려해 보라. 대상 1:1-4에서 그는 그의 족보들을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대상 1:1-4)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므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

현대 기독교인들을 위해 역대기 저자는 여기서 주목할만한 일을 했다. 그는 창세기의 처음 다섯 장에 주의를 기울이며 그것들을 역사적으로 믿을만한 것으로 다루었다. 그는

창세기의 처음 장들로부터 13명의 사람을 언급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이 사람들에게 대한 성경의 기록을 전설적이거나 허구적이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역대기 저자는 창세기의 처음 장들의 역사적 신빙성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보여주었다. 그는 구약의 다른 많은 책들처럼 창세기를 역사에 대한 권위있는 창으로 사용했다.

이와 더불어 누가 사도행전 7장에 스테반의 설교를 기록한 것을 예로 생각해 보라. 구약의 여러 부분을 사용하며, 스테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아론, 여호수아, 다윗 그리고 솔로몬을 역사적 인물로 말했고, 구약에 기록된 그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임을 시인했다. 스테반에게 있어서, 구약에 기록된 역사는 사실이었고, 그 역사적 기록은 그의 동포 유대인들의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촉구하는 기초 역할을 했다.

거듭 거듭 성경 저자들과 인물들은 구약의 역사적 주장들과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들 사이의 일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 보였다. 그들은 구약을 역사의 창으로 보고 그 역사로부터 그들 자신의 시대를 위한 신학적 결론들을 얻었다. 오늘의 우리도 그들의 예를 본받아 그들처럼 믿고 행해야 할 것이다.

B. 초점 (Focus)

구약 정경을 역사에 대한 권위있는 창으로 접근하는데 정당한 근거가 있음을 보았으므로, 우리는 두번째 문제로 관심을 돌릴 것이다. 역사적 분석의 초점은 무엇인가? 구약 정경에 대한 이 접근 방법의 목표는 무엇인가?

지난 세기에 역사적 분석의 한 유형이 “성경신학”이란 명칭아래 인기를 얻으며 발전했다. 이것은 요즈음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접근 방법들을 가리키는 상당히 폭넓은 용어이다. 그러나 성경 신학의 가장 영향력있는 유형 하나는 두 가지 기본 단계에 집중하는 것으로 묘사될 수 있다. 한 단계는 구약의 한 시대를 한 단위로 보며 “공시적 속사(스냅 사진, 초묘)”를 만드는 것이다. 다른 한 단계는 시대를 가로질러 사건들 사이의 연관들을 보며 “통시적 추적”을 하는 것이다. 이 두 단계는 서로 관련되어 있고 수많은 점에서 함께 작용한다. 성경 신학자들은 끊임없이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을 위해 이 두 단계를 따로 분리해서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공시적 속사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자.

1. 공시적 속사(速寫) (Synchronic Snapshot)

공시적 단계에서 성경신학자들은 구약을 시대들로 나누고 성경이 그 시대들에 관하여 무엇을 말하는지를 탐구한다. 그들은 성경 역사의 한 부분에 집중하며 그 때에 일어났던 복잡하게 얽힌 사건들을 하나의 공시적인 단위 곧 한 부분의 시기로 다루며 요약한다. 구약의 신학적 초점을 따르며 그들은 대개 이 사건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상호 작용들의 특징을 어떻게 나타내는가에 집중한다. 따라서 공시적 속사는 구약의 각 시대에 대하여 만들어진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다. 지난 강의에서 보았던 것처럼 구약의 역사는 강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끊임없이 흐른다. 그것의 역사는 발전해가는 통일체이므로 분리되어 별개의 부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더 큰 발전들을 향해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약을 시대들로 나누는 것은 항상 다소 인위적이다. 그것은 강의 길이를 별개의 부분들로 나누는 것과 같다. 강이 여러 가지 혜택을 고려해 길을 따라 여러 지점들에서 구분될 수 있듯이, 구약의 공시적 속사들을 만들기 위해 구약 역사를 나누는데 유익한 방법들이 많이 있다.

실제로 우리가 구약의 시대들을 나누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들은 우리가 만드는 구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이 강좌의 이전 강의들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서 발전해 가는 것을 염두에 두었을 때, 우리는 원시 역사 시대와 이스라엘의 국가적 역사 시대의 관점에서 말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이러한 구약 시대 구분에 신약 시대를 추가했다. 이러한 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계획의 주요 단계들을 밝혀 주었다.

다른 한 강의에서 언약들에 집중하였을 때, 우리는 우주적 언약들의 시대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들의 시대에 대하여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의 새 언약을 추가했다. 우리는 우주적 언약들을 아담 시대의 기본 언약과 노아 시대의 안정 언약으로 세분하였고, 민족적 언약들을 아브라함 시대의 약속 언약과 모세 시대의 율법 언약과 다윗 시대의 왕정 언약으로 세분하였다. 그리고 늘 그랬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곧 성취 언약을 추가했다. 이러한 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경영하시기 위해 언약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보는데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다.

구약을 공시적인 시대들로 구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제 7 장에 나온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 타락 전과 타락하여 죄에 빠진 후에 생긴 주요 변화들을 기준 삼아, 이 신앙고백은 구약의 역사를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의 “행위

언약”의 시기와 나머지 성경 역사를 망라하는 “은혜 언약”의 시기로 나눈다. 그리고 이 신앙고백은 은혜 언약에 있어서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시기 곧 구약 시대와 “복음 아래” 있다고 하는 시기 곧 신약 시대 사이의 중요한 구분에 대하여 말한다.

지난 세기에 저명한 성경신학자 게할더스 보스는 하나님의 계시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생긴 주요 변화들을 기준 삼아 구약 시대들을 나누었다. 그는 타락 전의 구속 이전 시대(pre-redemptive era)와 타락 이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되기 전의 최초의 구속 시대, 타락으로부터 노아의 홍수에까지 이르는 시대, 홍수 후에 족장들에게까지 이르는 시대, 모세 시대, 그리고 모세 이후의 선지자 시대에 대하여 말했다. 그리고 당연히 그는 또한 신약 시대에 대하여 말했다. 보스가 이러한 구분을 따른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형식과 내용에 일어났던 주요 변화들이 역사를 한 시대로부터 다른 시대로 이동시켰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한 시기가 정해지면 성경신학자의 일은 그 시기에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계시하는 역사적 사건들의 망상 조직에 집중하는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모든 역사 시기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은 서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주어진 시기에 어떤 사건들은 다른 사건들보다 훨씬 더 큰 조형적 역할을 한다. 전형적으로 성경신학자들은 구약의 각 시기의 보다 조형적인 혹은 중심적인 사건들에 집중한다.

예를 들어 성경신학자들이 흔히 약속의 시기라고 알려진 구약 역사의 부분 즉 이스라엘의 족장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 집중한다고 생각해 보자. 그들은 자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주로 직접 주신 말씀과 환상과 꿈을 통해 계시하셨던 것을 관찰한다. 그들은 민족적 초점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에게로 좁혀지는 것에 주목한다. 그들은 족장들이 여러 제단에서 제사를 드린 것을 본다. 그들은 족장들에게 주어진 많은 후손에 대한 약속을 묘사하고 족장들에게 있어서 땅에 대한 약속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이러한 종류의 관찰들은 족장 시대 동안 주요한 역할을 한 조형적 사건들을 식별하며 전체적으로 족장 시대의 특징을 묘사하려는 시도들이다.

성경신학자들은 또한 출애굽과 약속의 땅의 정복을 위해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모세의 시대 곧 율법의 시기에 집중하기로 작정할 수도 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여러 방식으로 계시하셨지만 주로 모세의 율법을 통해 계시하셨다. 이스라엘로 좁혀진 민족적 초점은 국가적 초점으로 발전했다. 성막이 건축되고 예배가 그곳으로 중앙화되었다. 이스라엘은 인구가 크게 증가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 이러한

종류의 사건들은 모세 시대 전체의 특징을 이루며 성경 역사 가운데 이 시기의 속사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2. 통시적 추적 (Diachronic Trace)

성경 역사의 특정 시기들의 공시적 속사에 이어서 신학 지향적인 역사적 분석은 대개 두번째 단계 곧 통시적 추적으로 나아간다. “통시적”이란 용어는 “시간을 통하여”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통시적 추적은 한 시기로부터 다른 한 시기로 흐른 시간을 통하여 성경의 사건들이 어떻게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집중한다.

우리가 통시적 추적을 수립하는 과정을 요약하면 이렇다. 각 시기의 중심적인 사건들이 확인되면서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사건들이 각 시대에 일어난 것이 명백해진다. 이 사건들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서로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성경신학자들은 이러한 연관들에 주목하며, 일련의 사건들이 역사의 한 시기로부터 다른 시기로 이르며 이루어진 발전들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추적한다. 각 시기의 사건들을 비교하면 구약이 따르던 진로들, 방향들 혹은 길들이 자주 드러난다. 그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진전에 대한 통찰력을 준다.

통시적 추적의 예를 들어보자. 우리의 연구는 공시적으로 약속의 족장 시대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해보자. 창 15:18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창 15:18)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너의 후손에게 내가 이 땅 곧 애굽의 강으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의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

다른 곳에서 우리가 보았던 대로, 이 시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을 위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 이 사건은 족장 시대에 중심적인 사건들의 전체 조직에 매우 핵심적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사건을 족장 시대로 국한하여 이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성경신학자들은 또한 과거의 어떤 사건들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리라는 약속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미래의 사건들이 그것의 중요성을 밝혀주는지를 알기 원한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건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증가시키려고 통시적 접근으로 나아간다.

되돌아보기 위해 우리는 성경 역사의 최초의 시기 곧 아담에서 노아에 이르는 원시 역사 시대로 향할 수 있다. 다른 강의에서 본 것처럼 이 시대에서 하나님은 최초로 인간을 그의 대리 통치자들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온 땅을 다스리라고 명하셨다. 창 1:18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창 1:28)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땅의 대리통치자들로 임명했을 때, 세상은 죄가 없었고, 따라서 지배는 어려움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도달가능한 목표였다. 그러나 죄는 인간의 노력을 어렵게 하고 헛되게 하며 지배의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창 3:17-19에서 하나님은 친히 아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창 3:17-19)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고통 중에 너는 일생동안 그것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땅은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식물을 먹을 것이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네가 음식을 먹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여 죄에 빠진 후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땅의 지배를 추구할 것을 기대하셨다. 사람들의 악함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시겠다고 결심하셨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나라가 신실한 남자들과 여자들을 통하여 땅에 임하게 하시려는 계획을 유지하셨다. 창 9:1에서 하나님은 홍수 후에 곧바로 노아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셨다.

(창 9:1)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러한 원시 역사 시대의 기록에서 우리는 죄로 인해 야기된 어려운 일들에도 불구하고 태초에 그분이 명령하신 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구속받은 사람들이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기를 기대하고 계셨음을 배운다.

이러한 배경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주신 땅의 약속이 사람들로 땅을 지배하도록 하신 소명의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한 단계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원시 역사 시대에 하나님은 그의 형상들을 부르시어 허무와 최악의 세상에서 통치권을 행사함으로써 땅에 그분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하셨다. 이러한 통치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로 가나안이란 약속의 땅을 소유하도록 부르신 일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족장 시대에 이루어진 이 단계의 성취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 족장들에게 주신 땅의 약속은 미래에 훨씬 더 큰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한 단계였다. 창 22:18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다.

(창 22:18) 네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거점 곧 출발점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이 거점으로부터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위해 정하신대로 땅의 모든 족속들이 구속의 복들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땅을 다스리도록 인도할 것이었다.

이런 이유로 인간의 통치권에 대한 우리의 통시적 추적은 출애굽과 정복의 시기 곧 모세와 그의 시종 여호수아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세우시고 그 땅을 그들의 고국이 되게 하셨다.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복된 땅을 주심으로써 더 구체화되었다. 수 1:6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수 1:6 개역개정)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통치권을 행사하도록 하신 원래의 명령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약속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더 구체화되었다.

출애굽과 정복의 시대에 있었던 최초의 땅의 소유는 이스라엘에 왕과 성전이 있던 제국 시대에 더욱 더 확대되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원수들을 물리치고 땅을 확보하고 큰 제국으로 성장했던 때였다. 다윗 왕조가 제공했던 땅의 안전은 땅의 초기 정복을 견고하게 하고 확대하는 단계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초기 제국적 현실 또한 다윗 가문의 의로운 통치가 온 땅에 임할 훗날을 기대하도록 하였다. 우리는 시 72:8-17에서 다윗 집에 대한 이러한 소망에 대하여 읽는다.

**(시 72:8-17 개역개정)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 . .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 . .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제국 시대의 소망은 다윗 가문의 주님께 대한 신실함이 증명되고,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며 신실한 자들의 구원과 통치가 온 땅 위에 임하는 것이었다.

안타깝게도, 다윗 가문에 대한 이 큰 소망은 포로기와 회복기의 실패로 인해 처참하게 붕괴되었다. 이 시기는 성취가 확대되는 시기라기보다는 오히려 실제로 실패의 시기였다. 이 시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온 땅을 다스리는 것의 처절한 후퇴였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분의 백성에게 임했고 하나님은 북왕국과 남왕국을 그들의 땅에서 몰아내어 포로가 되게 하셨다. 더 나아가, 이 시기조차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다윗의 후손 스룹바벨을 그 백성의 총독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땅의 민족들에 대한 큰 승리를 주셨다. 학 2:7-9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학 2:7-9) 내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 . .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 . 내가 이 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스라엘이 신실했다라면 이 승리가 일어났을 것이고 구속과 통치권의 복이 온 세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다시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그 결과로 복과 팽창의 수여가 결코 실현되지 못했다. 사실 회복기는 하나의 비참한 실패였다.

아담과 노아에게 다스리라고 하신 명령, 족장들에게 주신 약속, 출애굽과 정복을 통한 국토의 확립, 왕정기의 성공들, 그리고 초기 회복기의 소망들이 모두 붕괴되었다. 구약의 마지막에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인간의 땅에 대한 통치라는 목표는 철저히 무너져 버렸다.

기독교인 성경신학자들이 성경 역사의 마지막 단계 곧 신약에 있는 역사의 절정으로 향하는 것은 바로 이 시점에서이다. 신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셔서 포로기와 시들어버린 회복기의 실패들을 역전시키시고 구속받은 사람들이 땅을 지배하는 일을 성취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신자들에게 확신시킨다. 예수님은 포로기의 저주를 파기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와 구원을 주시려고 오셨다. 그 결과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땅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계 2:26에서 예수님은 친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계 2:26)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분석의 실례는 역사적 분석이 우리에게 제공해 줄 것이 많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어오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있는 기록이다. 구약을 통하여 그 배후에 있는 역사를 봄으로써 우리는 구약 정경을 우리의 권위적이고 상세한 가이드로서 따를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을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 구약이 어떻게 거울로서 주제적 분석을 통한 안내와 창으로서 역사적 분석을 통한 안내를 우리에게 주는지를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구약에 대한 세번째 메타포 곧 그림 메타포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IV. 그림으로서 정경 (CANON AS PICTURE)

당신은 미술 박물관에 가 본 적이 있거나 위대한 그림들의 사진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위대한 그림을 주의깊게 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화가들과 그들이 그림 활동을 했던 시대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읽는 것 또한 큰 도움이 된다. 우리는 그것들의 예술적 특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그림들을 잘 숙고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화가들이 색과 선과 질감을 사용하는 방식들을 통하여 어떻게 그들이 그들의 견해와 감정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는지에 주목할 수 있다.

이와 매우 흡사하게 우리는 문학적 분석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 구약의 정경을 그림으로서 접근할 수 있다. 이 접근 방법에서 우리는 구약 정경을 숨겨 있게 쓰여진 책들을 모아 놓은 문학 작품집으로 간주한다. 우리가 구약에서 문학적 예술성을 감상하는 법을 배우지만, 우리는 또한 어떻게 구약 저자들이 그들의 노력을 통하여 원래의 독자들에게 그들의 견해를 전달하는지를 이해하려고 한다. 그리고 문학적 분석을 통하여 구약을 탐구하면서, 우리는 구약 정경이 우리에게 세부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훨씬 더 많은 방식들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항상 어느 정도는 성경의 책들의 문학적 특성들을 고려해 왔을지라도, 구약에 대한 이 접근 방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바로 아주 최근에 일어난 현상이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구약을 주제적 분석과 역사적 분석을 통하여 접근했다. 그러나 최근 몇 십년 사이에 많은 학자들은 성경에서나 다른 책에서나 해석자들의

관심사들과 역사의 사실들에 비해 의사 소통을 위한 모든 시도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역설한다. 대체적으로 작가들은 그들의 독자들과의 견해와 삶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들의 본문을 주의깊게 작성하여 그들 자신의 세계관을 표현한다. 문학적 분석의 목표는 구약 성경의 저자들이 의도했던 이러한 의사 소통적 힘, 곧 그것을 처음으로 받은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힘을 밝히 드러낸 후 그 동일한 힘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어떻게 구약이 그림으로서 다루어질 수 있는지를 탐구하기 위해 우리는 이전에 취했던 동일한 접근 방법을 취할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구약에 대한 문학적 분석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근거 혹은 정당성에 대하여 말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문학적 분석의 초점을 조사할 것이다. 먼저 문학적 분석의 정당성을 살펴보자. 구약에 대한 이 접근 방법이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A. 근거 (Basis)

문학적 분석의 정당성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립될 수 있지만, 이 강의에서 우리는 문학적 분석을 가지고 구약을 접근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해주는 두 가지 익숙한 이유를 강조할 것이다. 첫째로, 구약의 성격 자체가 이 접근 방법의 정당성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살필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성경 저자들이 제시하는 예들이 구약 성경에 대한 이런 시각의 중요성을 암시한다는 것에 유의할 것이다. 먼저 구약의 성격 자체가 어떻게 문학적 접근 방법의 중요성을 암시하는지를 고려해 보자.

1. 성경의 성격 (Character of Scripture)

문학적 분석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정당화하는데 가장 적은 노력을 요구하는 구약의 접근 방법이다. 그것은 구약의 몇몇 명백한 특징들에 의해 정당화된다. 첫째로, 구약은 우리에게 책들 곧 문학적 단위들로 다가 온다. 둘째로, 이 책들은 정교한 문학적 특성들을 드러낸다. 셋째로, 구약의 책들은 수많은 문학적 다양성을 나타낸다. 먼저 구약이 우리에게 책들 곧 문학적 단위들의 형태로 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자.

매우 기초적인 수준에서 문학적 분석은 구약이 문학 작품집이고 문학적 단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한 현대 성경의 목차를 한 번 빨리 훑어보면, 39 권의 책들이 우리의 구약에 들어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그 목록은 우리 중 많은 사람에게 익숙한 것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이다.

이 구약 책들의 목록을 잘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문학적 분석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이 목록에 대해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첫째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들에서 보는 구약 성경의 책들의 이름은 구약 정경에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다. 어떤 명칭들은 보다 이른 유대교 전통들에서 유래되었고, 어떤 명칭들은 구약 성경의 영향력 있는 고대 헬라어 역본인 70 인역에서 유래되었다. 그리고 어떤 명칭들은 훨씬 더 늦은 기독교 전통들에서 유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세부 사항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와 관련이 있다. 우리의 현대 성경에서 여섯 권으로 되어 있는 이 책들은 원래 세 권으로 상하의 구별이 없었다. 이외에도, 많은 해석자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원래 한 권의 책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문학적 분석의 관점으로 구약을 읽을 때, 우리는 구약의 책들을 원래 주어졌던 대로 보는 일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제한 사항을 유념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로, 구약 성경에 책들이 나오는 순서가 시대에 따라 달랐다. 우리의 현대 성경들의 순서는 70 인역이라는 헬라어 전통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유대교 전통에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의 것과 다르다. 그것은 성문서라고 불리는데 시편, 잠언, 욥기, 아가, 룻기, 애가, 전도서,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상, 역대하를 포함한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구약 정경이 문학 작품집이라는 것은 여전히 분명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석할 때 이러한 문학적 단위들의 본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아주 적절하다.

주제적 분석이나 역사적 분석과는 대조적으로, 문학적 분석을 통하여 구약을 그림으로 다루는 일은 정경 자체의 패턴들을 따라 구약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형성하려는 시도이다. 문학적 분석에서 우리는 정경 안에 있는 문학적 단위들과 병행되는 방식으로 우리의 신학적 평가들을 배열하려고 노력한다.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구약에서 발견한 것을 재배열하는 것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약 정경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곧 분석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고, 심지어 번역하지도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재배열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적 분석은 구약 자체의 문학적 단위들과 우선 사항들을 찾으면서 재배열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 우리가 구약 정경을 그림으로서 접근할 때, 창세기는 창세기로서,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로서, 레위기는 레위기로서, 신명기는 신명기로서,

각 책이 갖는 독특한 신학적 관심들을 식별하려고 노력한다. 이것에 추가하여 우리는 중대한 것에 중요성을 부여하려고 애쓰고, 이 책들에 두드러진 것을 우리의 해석에 두드러지게 하려고 애쓴다.

구약 정경이 주제적 단위들이나 역사적 단위들이 아니라 오히려 문학적 단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 외에도, 문학적 분석은 또한 구약 책들이 정교한 문학적 특성들을 드러내 보인다는 사실에 의해 정당화된다. 구약의 책들이 간단하고 생기없는 산문이라면 문학적 분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구약 책들의 문학적 정교함은 그것들의 문학적 특성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요구한다.

일상의 경험에서 우리 모두는 어떤 종류의 글들이 다른 글들보다 훨씬 더 정교한 문체와 복잡한 문학적 예술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들 들어, 소네트(14 행시)의 격정을 가지고 쓰여진 쇼핑 목록을 본다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빠른 메모는 정교한 소설이 받는 예술적 관심을 받는 일이 거의 없다. 간단한 글들을 만났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 그것들의 문학적 특성들에 많은 관심을 쏟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훌륭한 소설이나 우아한 시를 읽으며 그것들의 복잡한 사항들을 볼 때, 그것들을 보다 충분히 감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들의 정교한 문학적 특성들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저자들의 정교한 문학적 기교들을 식별하는 것은 그들의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잘 알려진대로, 고고학자들은 구약의 세계로부터 유래된 광범위한 분야의 문헌들을 발견했다. 우리는 문학적 복잡성을 많이 드러내지 않는 간단한 편지들, 목록들, 영수증들,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것들을 갖고 있다. 그러나 고고학자들은 또한 고대 근동에서 유래된 참으로 훌륭한 문학 작품들도 발견했다. 성경 시대의 위대한 문화들은 정교한 신화들과 전설들, 복잡한 법률 문서들, 난해한 의식 본문들을 갖고 있었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이 **에누마 엘리시**, **길가메시 서사시**, 그리고 **바알 신화** 등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들은 뛰어난 예술성을 지닌 저명한 문학 작품들이었다.

그러나 의심할 여지 없이, 구약의 책들은 고대 세계로부터 알려진 가장 정교한 문학 작품들에 속한다. 어떤 드라마가 욱기보다 더 정교할 수 있겠는가? 어떤 내러티브가 창세기보다 더 복잡하게 구성될 수 있겠는가? 어떤 시가 시편 23 편보다 더 인상적일 수 있겠는가? 대부분의 기준들에 의하면 구약의 책들은 고대 세계의 가장 위대한 문화들이 낳은 가장 위대한 문헌이 갖는 문학적 예술성과 동등하거나 그보다 우월하다.

불행하게도, 기독교인들은 주제적 관심사들과 역사적 관심사들을 추구할 때 자주 이러한 문학적 특성들을 보지 못하고 넘어간다. 그러나 실제로 구약 책들에게 의사 소통의 힘을 주는 것은 바로 그것들의 문학적 특성들이다. 구약 문학의 예술적 특성들은 구약의 저자들이 그들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수단이었다. 우리가 구약 책들의 문학적 특성들을 음미하는 법을 배울 때에만 그것들의 의사 소통의 힘 곧 의도된 영향력이 이해된다. 이런 이유로 인해 우리 자신을 구약 정경의 권위에 복종하게 하는 문제에 이르면 문학적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구약이 문학적 단위들로 주어지고 정교한 문학적 특성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문학적 분석을 사용하는 것 외에도, 그것이 담고 있는 문학의 다양성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문학적 분석을 추구해야 한다. 구약 정경은 지루한 지형처럼 모든 페이지에 동일한 종류의 글이 나오는 문헌이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그것은 산들, 강들, 호수들, 비옥한 평야들, 사막들, 그리고 대양들로 이루어진 다양한 풍경과 같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약의 책들은 다양한 장르 혹은 유형의 문학을 나타내고 있다.

창세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와 같은 구약 책들은 주로 내러티브로 되어 있다. 이 책들에는 족보, 시, 예배와 사회적 규정들과 같은 다른 장르들이 아주 조금 섞여 있다. 그리고 시편, 욥, 아모스처럼 주로 시로 되어 있는 다른 책들도 있다. 전도서와 말라기처럼 매우 틀에 박힌 또 다른 책들도 있다. 목록은 얼마든지 계속될 수 있다.

각 장르가 그 나름대로의 관습 곧 그것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나름대로의 방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 여러 가지 장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각 장르가 저자들의 의도를 전달하는 방식들을 배워서 그 지식을 구약을 읽을 때 적용해야 한다. 율법은 율법으로서 읽혀야 하고, 연설들은 연설들로서 읽혀야 하고, 그리고 이야기들은 이야기들로, 시들은 시들로, 경구들은 경구들로, 환상들은 환상들로서, 족보들은 족보들로서 읽혀야 한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구약의 단락들의 힘을 밝혀내기 위해, 우리는 구약 저자들이 그들의 독자에게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문학을 사용했는지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장르에 대한 숙고는 문학적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2. 성경의 예들 (Biblical Examples)

성경의 성격 자체 외에도, 문학적 분석은 또한 성경 인물들과 저자들이 이런 식으로 구약 정경의 안내를 구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요컨대, 성경 저자들은 구약 단락들을

해석할 때마다 독자에 대한 인간 저자로서의 주요한 관심사들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상당한 분량의 문학적 분석을 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막 10:4 에서 예수님은 신 24:1 을 통해 이혼 문제를 다루실 때 문학적 분석에 집중하셨다. 막 10:4 에서 우리가 읽는 것처럼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혼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며 예수님께 도전하였다.

(막 10:4) 모세는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 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떤 바리새인들은 신 24:1 이 남자가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 주는 한 실질적으로 어떤 이유이든 상관없이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문학적 고려 사항들에 집중하시며 이 잘못된 해석을 고쳐 주셨다. 신 24:1 에 대하여 해설하시며 예수님은 막 10:5 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

(막 10:5) 모세가 너희에게 이 법을 써서 준 것은 바로 너희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양보의 일환으로 이혼을 허락했었다는 것을 지적하셨다.

우리의 목적상,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로지 신 24 장의 본문만 보시며 그것의 문법이나 내부적 특성들만을 해석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분이 아시는 바 저자인 모세와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에 비추어 이 단락을 명쾌하게 해석하셨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과 모세가 그 율법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우려했던 것을 알고 계셨다. 바리새인들은 적절한 문학적 관심사들, 특별히 그의 완악한 독자에 대한 모세의 의도들을 고려하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요인들의 중요성을 아셨고 모세의 규정이 사실상 양보이지 이상이 아니라고 바르게 결론지으셨다.

문학적 분석의 또 다른 예는 갈 4:22-24 에 나온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그녀의 아들 이삭, 그리고 사라의 여종 하갈과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에 대한 구약의 이야기들에 대하여 바울이 갈 4:22-24 에서 다음과 같이 쓴 것을 들어보라.

(갈 4:22-24 개역개정)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구절들과 주변 문맥에는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바울의 해석의 핵심에만 집중하기로 하자. 24 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사라와 이삭과의 관계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갈과 이스마엘과의 관계가 “두 언약을 대표하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말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바울은 아브라함과 이 인물들의 관계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사는 사람들의 삶에 관련된 위대한 신학적인 암시들을 갖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 신학적 암시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었던 사건들을 살펴보자. 창세기의 기록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두 가지 방식 곧 한편으로 사라와 이삭, 다른 한편으로 하갈과 이스마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했던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한 측면에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 아이를 주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 신실하였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는 이 길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였다. 그러나 다른 한 측면에서 아브라함은 애굽인 여종 하갈을 통해 아이를 가지려고 그 자신의 노력에 의존했을 때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 이 기본적인 두 가지 패턴을 염두에 두고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때 이 패턴들을 사용했던 방식들을 살펴보자.

모세가 아브라함의 생애에 관하여 쓸 때 그는 아브라함의 선택들이 갖는 중대한 의미들을 잘 의식하고 있었다. 사실 모세가 창세기에서 이 이야기들을 말한 목적은 그것들이 그의 독자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시대에 직면했던 두 가지 방식의 삶을 대표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한편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분께 신실할 것을 촉구하였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은 힘들지만 그것은 복을 받는 길이였다. 다른 한편으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이 애굽인 여종 하갈을 의존하였던 것처럼 애굽으로 돌아감으로써 인간의 노력에 의존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촉구하였다. 되돌아 가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것이었다.

이러한 모세의 원래의 의미의 방향을 따르며, 바울은 이 이야기들을 갈라디아 교회들이 직면한 선택들에 적용하였다. 갈라디아인들은 바울이 전한 참 복음과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전한 거짓 복음 사이에 선택을 해야만 했다. 참 복음은 구원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뢰하는 것으로만 온다는 것이었다. 거짓 복음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떠나 율법의 순종이란 인간의 노력을 구원의 길로 삼는 것이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는 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라의 자녀들이고 약속의 후사들이지만, 거짓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갈의 자녀들이고 구원의 선물의 후사들이 아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는 참 복음은 복들로 인도하는 반면, 율법 순종에 의지하는 거짓 복음은 다만 심판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렇게 신랄하게 창세기를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문학적 분석에 대해 관심을 두며 모세가 창세기의 이야기들에서 문학적 인물들을 사용한 방식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을 문학적 그림으로서 다루는 근거를 살폈으므로 이제 우리는 문학적 분석의 초점에 우리의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구약 정경에 대한 이 접근 방법에서 무엇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B. 초점 (Focus)

문학적 분석의 관심사들을 묘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지만, 우리의 목적상 세 가지 초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한 단락의 저자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둘째로, 우리는 한 단락의 원래의 독자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셋째로, 우리는 연구하고 있는 실제의 문서 곧 본문에 관심을 갖는다. 먼저 구약 저자들을 고려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1. 저자 (Writer)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이 구약 전체의 궁극적인 저자이시다. 그분은 구약 정경 전체를 영감하셨고 지휘 감독하셨다. 그러나 다른 강의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영감은 유기적이었다. 하나님은 정경의 책들을 창작하시는데 인간 저자들의 배경, 사상, 감정, 그리고 의도를 사용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이러한 인간적 요소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저자들에 대한 초점을 고려할 때 두 가지 방향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으로 우리는 많은 위험들을 의식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많은 혜택들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추론에 빠질 때 구약의 인간 저자들에 대한 강조로부터 많은 위험이 발생한다. 과거에 많은 해석자들이 얽히고 설킨 복잡한 심리학적이고 사회학적인 추론들을 내세우는 방식들을 통해 저자에 집중했다. 그들은 얼마간 저자의 정확한 정체, 그가 직면한 구체적인

상황들, 그리고 그의 세부적인 신학적 동기들과 같은 문제들과 씨름하며 추론들을 했다.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는 답들을 찾아 밀어붙이면, 우리의 해석은 박약한 추론들에 의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저자에 대한 이런 식의 지나친 강조는 저자의 의도에 대한 우리의 재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므로 “의도적 오류(intentional fallacy)”라고 불리울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저자들을 세심하고 믿을 만하게 다룬다면 그들에 대한 강조는 우리에게 큰 이득이 될 수 있다. 나중의 강의들에서 볼 것이지만, 우리가 성경의 저자들에 대하여 알기 원하는 만큼 알 수는 없어도, 여전히 그들의 작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의 신원, 그들의 개괄적인 상황, 그들의 기본적인 신학적 동기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는 가질 수 있다.

흔히 역대기 사가라고 하는 역대기 저자를 예로 들어 보자.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 우리는 그의 이름이나 그의 정확한 사회적 신분을 알지 못하고, 정확하게 언제 그가 살았고 그의 책을 썼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의 심리학적 경향이나 그의 개인적인 장점과 약점에 대하여 그렇게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책을 해석하며 이러한 종류의 고려 사항들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은 틀린 가정들에 입각하여 설명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약 자체로부터 그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역대기 사가가 많은 이스라엘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던 귀환기의 어느 때에 살면서 역대기를 썼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이것이 확실한 것은 대상 9:1-44 의 족보들이 귀환한 사람들을 열거하고 역대기의 마지막 절 곧 대하 36:23 이 바사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칙령을 내린 것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한 역대기 사가가 이스라엘의 지적 엘리트의 일원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의 많은 부분을 인용했고 다른 성경 책들도 언급했다. 이 외에도 역대기 사가는 대상 27:24 과 같은 구절들에서 왕들의 역대지략의 내용을 언급했다. 그리고 대하 9:29 과 같은 구절들에서 구약에 나오지 않는 선지자들의 신탁집들에 대하여 언급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역대기를 사무엘서와 열왕기와 비교함으로써 역대기 사가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공헌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다윗 왕조의 통치와 예루살렘 성전의 정결에 매우 헌신적이었다. 그는 반복해서 모세의 율법을 이스라엘의 신앙과 생활의 지침으로 언급했다. 그리고 우리는 역대기 사가가 죄와 순종에 대한 즉각적인 결과들의

예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함으로써 그가 하나님께서 한 세대의 중요한 충성이나 불충성에 따라 그의 백성에게 복이나 벌을 주셨던 방식에 깊은 관심을 보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역대기 사가의 신념들과 희망들에 대하여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다른 것들도 많이 있지만, 요점은 바로 역대기 사가가 그의 원래 독자에게 영향을 주려고 문학적 기교들을 사용했던 방식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그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성경 저자들에 대하여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므로, 우리의 해석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저자들에게 집중하는 것은 매우 유익할 수 있다.

2. 독자 (Audience)

저자에 집중하는 것 외에도, 구약의 믿을 만한 문학적 분석은 원래의 독자도 고려한다. 그들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그들은 그들이 받은 성경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구약의 책들의 저자들을 고려하는 일에 위험과 유익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래의 독자에 집중하는 일에도 위험과 유익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문학적 분석의 어떤 형태들이 성경의 저자들에 대하여 너무 많은 추론을 하듯이, 문학적 분석의 또 다른 형태들은 독자에 대한 자세한 지식에 너무 많이 의존한다. 그것들은 독자의 정확한 신원에 대하여 추론한다. 그것들은 독자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재구성한다. 그것들은 독자의 심리적인 상태를 상상한다. 그것들은 독자의 장점과 약점을 상상해 보는 데까지 나아간다. 이러한 종류의 입장들이 해석에 중심을 차지할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심리적이고 사회학적인 추론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독자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정서적 오류(affective fallacy)”라고 불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역대기의 경우에 우리는 역대기 사가가 제사장들이나 다윗 왕가와 같은 선택된 그룹의 사람들을 위해 썼는지 아니면 일반 백성을 위해 썼는지 잘 알지 못한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항했거나 순응했는지를 모른다. 우리는 그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대 이전에 살았는지 아니면 동시대에 살았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살았는지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러한 사항들을 아는 것은 우리의 해석에 추가적인 조명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우리가 그러한 사항들을 확신할 길이 없으므로, 우리의 해석은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추론하지 않을 때 더 믿을 만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도움이 되는 일반적인 정보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독자를 고려하는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 많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의도된 독자가 고대 히브리어를 읽지는 못해도 이해할 수는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자주 그들의 일반적인 거주지를 알고 있다. 우리는 자주 그들이 겪었던 주요 사건들을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의 그룹들의 사람들의 경우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언약적 책임에 신실했던 사람들과 불신실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역대기의 경우에, 우리는 원래 독자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역대상 9 장의 족보들이 고토로 돌아왔던 사람들의 목록으로 끝나는 사실은 역대기 사가가 약속의 땅에서 그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는 것을 암시한다. 우리는 또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와 같은 책들로부터 그들의 일반적인 사회적 조건들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는 매우 어려웠던 시기였다. 선지자들의 소망들과는 반대로,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만 고토로 돌아왔다. 아무래도 성전 예배는 약했고, 다윗 왕조는 재건되지 않았다. 국가는 경제적 곤궁에 처해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반복되는 갈등과 전쟁의 위협을 겪었다. 우리는 전혀 추론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아주 분명하게 독자의 상황에 관한 이러한 종류의 일들을 알 수 있다.

독자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역대기의 목적과 원래 의미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역대기의 모든 특정 단락의 해석은 우리가 원래의 독자에 대하여 아는 것에 비추어 진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저자와 독자에 대하여 아는 것을 고려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다루었으므로, 이제 우리는 구약의 문학적 분석의 세 번째 주된 초점 곧 본문 자체에 대한 관심의 문제로 나아갈 것이다.

3. 본문 (Document)

우리가 “본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것은 우리가 숙고하려는 구약의 어느 부분을 가리킨다. 그것은 한 개의 문이나 두 개의 문, 한 개의 구절이나 두 개의 구절, 구절들로 이루어진 한 부분, 한 권 전체, 한 부류 곧 한 그룹의 책들, 혹은 심지어 구약 정경 전체가 될 수 있다. 여하튼 본문에 대한 우리의 초점은 문학적 분석에 있어서 중심적이다.

불행하게도, 최근에 많은 해석자들이 본문 자체가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해 왔다. 이러한 학자들은 저자와 독자를 고려하는 일에 수반되는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의도에서 우리가 저자와 독자를 무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이것이 따라야 할 안전한 방향이 아닌 이유는 성경이든 다른 책이든 동일한 본문이라도 누가 썼고 누구를 위해 썼느냐에 따라 매우 다른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석자들이 전적으로 본문에만 집중하고 저자와 독자를 무시할 때, 그들은 본문 자체에 너무 많은 희망을 걸기 때문에 우리가 “묘사적 오류(graphic fallacy)”라고 부를 수 있는 실수에 빠진다.

저자와 독자를 고려하며 본문을 주의깊게 살피는 일의 중요성을 예시하기 위해 우리는 대상 33:1-20 에 나오는 므낫세의 통치를 검토할 것이다. 이 단락을 연구할 때 이와 병행되는 왕하 21:1-8 의 므낫세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커다란 이점이다. 실제로 역대기 저자는 문학적 분석에 아주 중요한 방식들을 통해 열왕기하 21 장을 그대로 옮기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하고, 추가하기도 했다. 먼저 열왕기하 21 장을 살펴보기로 하자.

열왕기하 21 장은 5 개의 대칭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1 절의 므낫세 통치의 시작이고, 둘째는 2-9 절의 므낫세의 우상 숭배의 죄이고, 셋째는 10-15 절의 므낫세에 대한 선지자의 질책이고, 넷째는 16 절의 추가된 므낫세의 폭력의 죄이고, 다섯째는 17-18 절의 므낫세 통치의 마감이다.

이 개요가 제시하듯이, 열왕기하 21 장에서 므낫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악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는 큰 죄인으로 소개되어 있다. 이야기의 두번째 부분은 그의 우상숭배를 자세히 묘사한다. 그는 성전을 우상들로 더럽혔고 백성들로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하도록 이끌었다. 이야기의 세번째 부분은 주님의 선지자들의 므낫세에 대한 무서운 정죄에 이른다. 이 구절들에 의하면 므낫세의 죄들은 예루살렘의 파괴와 그 백성의 국외 추방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다. 이야기의 네번째 부분은 므낫세가 또한 예루살렘의 거리들을 무고한 사람들의 피로 얼룩지게 했다는 것을 언급한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간단히 므낫세가 죽어 장사되었다고 전한다. 열왕기하 21 장에는 므낫세의 생애에 있어서 결점을 보충하는 장점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이제 역대기 33 장에 나오는 므낫세 통치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자. 이 이야기는 열왕기하 21 장과 상반되지 않지만, 매우 다르게 묘사되어 있다. 대하 33:1-20 도 역시 5 개의 주요 부분으로 나누인다. 첫째는 1 절로 열왕기하로부터 거의 대부분 그대로 옮긴 므낫세 통치의 시작이다. 둘째는 2-9 절로 므낫세의 우상 숭배가 왕하 21:1-9 과 약간 다르게 설명되어 있다. 여기까지는 역대기 사가의 이야기가 열왕기하의 것과 매우 흡사하다. 두 기록에 있어서 므낫세는 지독한 죄인으로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역대하 33 장의 세번째, 네번째, 그리고 다섯째 부분은 열왕기하와 매우 다르다. 세번째 부분인 10-13 절에서 역대기 사가는 유다가 장차 국외로 추방될 것이라는 열왕기하에 있는 예언을 포함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 그 대신에 역대기 사가는 므낫세 자신이 그 자신의 생애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일을 언급했다. 거기에 있는 동안 므낫세는 그의 죄들에 대하여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 그리고 역대기 사가는 므낫세의 폭력을 언급하는 대신에 네번째 부분인 14-17 절에서 므낫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을 재건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를 회복시켰던 것을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부분인 18-20 절은 므낫세의 회개의 기도를 한 번 더 언급함으로써 열왕기하를 확장시키고 있다.

열왕기하와 비교할 때 역대기 사가의 기록은 훨씬 더 긍정적이다. 두 이야기 모두 므낫세의 끔찍한 죄들을 전한다. 열왕기하는 므낫세의 예루살렘 주민들에 대한 폭력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므낫세에 대한 정죄를 전한다. 그러나 역대기 사가는 열왕기하에 나오는 이 부분의 이야기를 생략한다. 그 대신에 역대기 사가는 므낫세가 국외로 추방되고 거기서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을 추가했을 뿐만 아니라 므낫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과 성전을 회복시킨 것을 추가했다. 그리고 두 책의 이야기가 모두 므낫세의 죽음으로 끝나고 있지만, 마지막으로 역대하는 므낫세의 회개를 상기시키는 것을 추가하고 있다. 이것을 간단히 요약하여 말하면, 열왕기하는 므낫세를 변함없는 죄인으로 제시하는 반면 역대하는 그를 회개한 죄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열왕기하와 역대하의 병행 이야기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차이들을 고려하며 우리는 또 다른 문학적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이 이야기들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들이 므낫세의 생애에 대한 이렇게 다른 관점을 제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 마디로 말하면, 그 차이들은 열왕기와 역대기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쓰여졌고 다른 독자들을 위해 쓰여졌다는 사실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 각 저자는 므낫세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각자의 다른 목적을 갖고 있었다.

나중의 강의에서 배울 것이지만, 열왕기 저자는 일차적으로 바벨론에 있는 포로민들에게 예루살렘의 파괴가 일어난 이유와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추방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썼다. 그의 대답은 므낫세의 죄들이 국가에 이러한 저주들을 가져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본 대로 역대기 사가의 상황은 매우 달랐다. 그는 포로기 후에 힘겹게 살아가는 회복 공동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전진하도록 격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의 역사를 기록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역대기 사가는 그의 목적에 맞도록 므낫세에 대한 사실적인 것들을 생략하기도 하고 추가하기도 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므낫세의 생애의 세부 사항들을 통해서 그 자신의 이스라엘 독자들과의 삶과 병행되는 부분들을 밝히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므낫세가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것처럼 그들도 동일한 죄를 저질렀다.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끌려 갔었던 것처럼 그들도 끌려갔었다. 므낫세가 회개하고 용서받았듯이 그들도 회개하고 용서받았다. 가장 중요한 점은 므낫세가 돌아오자마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적법한 예배를 회복시킨 것이었고 바로 이 일이 역대기 사가의 독자들이 그 시대에 직면해 있던 도전이었다. 그들은 므낫세의 모범을 따르며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회복시킬 것인가? 역대기 사가의 주된 요점은 바로 유다의 국외 추방을 야기시켰던 왕이 고국에 돌아와서 왕국을 재건하고 회복시켰다면 그의 독자들도 반드시 동일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역대하 33 장에 나오는 므낫세 통치에 대한 이 간략한 문학적 분석은 구약이란 문학이 그것의 권위적인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일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우리가 구약 본문의 저자들과 독자와 문학적 특성들을 고려할 때 구약 정경의 여러 부분들이 쓰여졌던 주된 목적들을 식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들을 아는 것은 우리가 구약의 원래 독자 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를 위한 구약의 권위적인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V. 결론 (CONCLUSION)

본 강의에서 우리는 구약을 권위있는 책들의 모음집, 곧 하나님의 백성이 직면했던 상황에서 그들을 인도하도록 의도된 정경으로서 탐구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세 가지 주된 측면에서 구약 정경의 권위에 복종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주제적 분석을 통하여 거울로서 구약을 탐구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의 답을 찾기 위하여 구약의 단락들에서 덜 중요한 주제들을 포함한 모든 주제들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역사적 분석을 통하여 창으로서 구약을 사용할 때, 우리는 구약이 전하는 역사적 사건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문학적 분석을 통하여 구약을 그림으로서 살펴보면 우리는 구약 단락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려고 했던 주된 목적들이나 영향들을 식별하는 법을 배웠다.

이후의 강의들에서 구약 정경에 대한 이러한 탐구를 계속할 때, 우리는 이 세 가지 접근 방법들로 자주 돌아올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관점에서 구약을 탐구하는 일은 구약이

어떻게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였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것이 우리의 권위적인 길잡이가 되는 많은 면들을 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VI. 연구의 길잡이 (Study Guide)

A. 복습을 위한 질문들 (Review Questions)

1. 정경을 거울로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성경의 성격과 성경의 예들에 의해 정당화되는가?
2. 주제적 분석의 세 가지 일반적인 초점들을 기술하라.
3. 성경의 성격과 성경의 예들이 어떻게 정경을 창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가?
4. 공시적 속사들과 통시적 추적들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것들이 유익한 이유는 무엇인가?
5. 성경의 성격과 성경의 예들이 어떻게 정경을 그림으로 보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가?
6. 문학적 분석에 있어서 저자와 독자와 본문에 대한 삼중적 초점의 중요성을 기술하라.

B. 적용을 위한 질문들 (Application Questions)

1. 당신이 개인적인 관심사에 대한 지도와 통찰을 얻기 위해 주제적 분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을 기술하라.
2. 당신은 성경의 역사적 사건들을 믿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본 적이 있는가? 기독교인들이 구약의 초자연적 사건들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3. 성경의 통시적 추적을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당신의 성경 이해를 풍부하게 해 주는가?
4. 저자의 의도들을 아는 것이 어떻게 성경을 보다 잘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예를 들어 보라.
5. 문학적 분석에서 어떻게 당신은 저자, 독자, 그리고 본문에 대한 오류들을 피할 수 있는가?
6. 성경은 어떤 점들에 있어서 여느 다른 책과 같은가? 그것은 어떤 점들에 있어서 다른가? 이러한 유사성들과 차이성들은 당신이 그것을 읽는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7. 이 강의에서 당신이 배운 가장 중요한 통찰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